나주시, '열린 행정' 이동시장실 운영

지난 달 이어 두 번째 빛가람전망대 집무실 마련

호수공원 · 전망대 활성화 방안 등 주민 건의 다양

나주시가 지난달에 이어,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과 주민과의 밀착형 소통을 위한 이동시장실을 11일 빛가람 전망대에서 운영했다.

강인규 시장은 오전 8시 30분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9시 30분부터 주민들과의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다.

이날 이동시장실을 찾은 주민 12명(단체 인원 제외)은 ▲LH1단지 아파트 정문 버스승강장 설치, ▲나주향교 옆 고택(정의관 집) 우수건축자산 등록 추진, ▲중흥3차아파트 동쪽 측문 설치 및 인근 공원 정자 건립, ▲빛가람 호수공원 · 전망대 활성화 방안, ▲빛가람동 내 터미널 유치, ▲산포면 토지매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 점검 등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주민들이 요청한 각종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 철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전남도, 경찰서, 아파트 입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안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빛가람 전망대 및 호수공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강 시장은 "금년도 전망대 내부에 야외화장실(2동), 이용객 대기실(3동), 수유실, 휠체어 대여소 등 노약자 및 임산부를 비롯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면서, "전망대 일원 수목조명 설치와 크리스마스 트리장식을 통한 '빛과 물의 정원' 조성사업도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전망대와 호수공원의 특성을 살린 유희시설과 볼거리,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30분 이동시장실 일정을 마친 뒤, 강 시장은 거동이 불편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과의 대화를 위해 LH2단지 경로당을 찾아 경로당 시설 점검과 건의사항 수렴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종 맞춤형 복지시책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 시장은 "경청은 상대방의 신뢰와 공감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대화 요소"라 강조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시민의 입장에서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더 많이 듣겠다.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재능계발 영재교육 운영

순천영재교육원

순천영재교육원(교육장 윤종식)은 오는 20일까지 '2017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재능계발 영재교육'을 관내 초등학교 5교, 중학교 2교 등 총 7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재능계발 영재교육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및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의 체험기회 제공으로 자존감과 학습의욕 향상에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구성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내용으로 드론플레이, 로터곱터, 진동카 경주하기, 빛으로 그리는 그림,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 주사기 공포탄 등 주제별로 나누어 수학·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조작하고 토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재능계발 영재교육에 참여한 김원경 학생(장촌초 6학년)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여 탐구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며 더 친해졌고 새로운 과학지식도 많이 배우게 되었으며, 다음에는 더 창의적인 조작활동을 해 보고 싶은 흥미가 생겼다."고 소감을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재능계발 영재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여건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식 교육장은 "순천 관내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지도교사들의 열정으로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자세에 대단히 놀랍고 자랑스럽다"며, "마음까지 따뜻한 영재로 성장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동부취재본부장=김승호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한 여름 밤의 물빛축제' 개최

내일부터 내달 말까지 동문 호수정원 일원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무더운 여름 밤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한 여름 밤의 물빛축제'를 14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문 호수정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물빛축제는 빛 조형물 포토존 등 라이트 가든 연출과 워터라이팅 쇼, 버스킹, 미술 등의 공연과 더불어 꿈틀정원에서 식물공장 옆 행사장까지 이어지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매일 운영되며, 수국과 장미를 수국원과 장미 미로정원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부대행사로 반딧불 체험행사, 가면 무도회, DJ페스티벌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워터라이팅쇼는 매일 저녁 8:30, 9:00, 9:30 1일 3회 15분씩 빔 무빙, 디지털 분수, 레이저 쇼, 불꽃놀이가 음악에 맞춰 환상적으로 연출되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식음시설은 식당, 매점, 스낵바 6개소가 운영된다.

물빛축제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개최되는 축제로, 야간 입장은 저녁 6시부터 가능하며, 입장료는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순천시민은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는 무료이다. 단, 시민 1년 회원권 소지자는 주·야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작년 540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온 순천만국가정원은 올해 사계절 축제 개최로 58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일러의 성지인 순천은 여름, 정원, 밤을 배경으로 물빛축제라는 신상품을 개발해 정원의 밤을 세일즈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물빛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비수기인 정원의 여름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우리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담다

순천시, '기적의놀이터 어린이 디자이너 스쿨' 운영

순천시는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놀이터에 담아내기 위한 '3호 기적의놀이터 어린이 디자이너 스쿨'을 지난 8일 운영했다.

어린이 디자이너 스쿨은 3호 기적의놀이터 대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부모,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봄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놀이터에 대한 주인의식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이들이 3호 기적의놀이터 대상지인 강청수변공원을 방문해 놀이터의 현재와 앞으로 조성될 놀이터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으로 디자이너 스쿨은 시작됐다.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등 3명의 공간디자이너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3호 대상지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스스로 창의적으로 기적의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다.

또한 편해문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세계놀이터 여행을 통해 아이들의 놀이터에 대한 상상력을 더욱 높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순천시 3호 기적의놀이터는 서면 강청수변공원의 자연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총 10곳의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아동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연회 가져

농업노동 부담경감과 작업능률 향상

광양시는 지난 7일 골약동 하포 광양구봉영농조합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인과 컨설턴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시연회에는 순천대학교 산업기계공학과 배영환 교수의 컨설팅을 받아 영농조합에 보급된 편이장비 20종 42점의 농기계를 시운전 해보는 형태로 진행됐다.

배영환 교수는 시운전한 편이장비들이 작목별, 지역별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업노동 부담 경감과 농업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개소에 5천만 원을 투자해 농업현장 작업 여건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해 장비를 보급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옥자 생활지원팀장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이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안전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